

# 道, 9월 공모사업서 1022억원 확보

### 농촌중심지 활성화·창조적마을 만들기 등 성과 올해 총 100건 선정... 삼락농정 실현 '성공'

전북도는 2017년도 9월중 중앙공모 사업에서 17건 국비 1022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 (11개 시·군, 707억4천만원), 창조적 마을만들기(11개 시·군, 129억3천만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4개 시·군, 8억6천만원),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운영(경제통상진흥원, 63억원) 등 17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22억1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로써 전북도는 올해 9월까지 총 100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22억1천만원을 확보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11개 시·군, 707억4천만원)은 읍면소재지를 농촌의 문화·경제·교육의 거점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등 주민편의 시설이 확충되어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적 마을만들기(11개 시·군, 129억3천만원)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관, 소득, 문화·복지, 종합개발 등 4개 부문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및 시·군단위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여 삼락농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작목 ICT활용 기술 개발(3억2천만원)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및 첨단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특화작목 및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 애로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농가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전

주·군산·익산·고창, 8억6천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지역(전주·군산·익산·고창)이 선정된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색다른 문화 체험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10월에는 7건, 88억5천만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해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11일 전주 티존뷰티에서 열린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 해단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유공자 표창을 하고 선수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 전국기능대회 전북선수단 해단식 가져

### 금3·은4·동5 획득... 종합 10위 송 지사, 입상 선수 노고 치하

지난 9월 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회에 참가한 전라북도 기능경기 선수단 해단식이 11일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37개 직종 114명의 전북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 우수상 6개로 종합점수 660점을 얻어 종합 10위를 기록했다. 최근5년간 성적을 보면 2014년까지 노골드에서 2015년 1개, 2016년 2개, 2017년에는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면서 점차적으로 경기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메달 수상자를 살펴보면, 폴리메카닉스 직종에 출전한 이은유 학생

(전북기계공고)과 화훼장식 분야의 양진용씨, 실내장식 직종의 법무부 재소자 A씨가 지난 4월에 개최된 전북지방기능경기대회 1위에 이어 전국대회에서도 귀중한 금메달을 수상했다.

작년에 이어 자동차 차체수리분야에서 전주공업고등학교 오인성(은), 한지호(동) 학생이 입상했으며, 자동차 페인팅 분야에 영선고등학교 김건웅(은), 김도훈(우수) 학생이 입상하는 등 자동차관련 분야에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냈다.

또한, 헤어디자인 분야에 유승하(은), 의상디자인 허인순(은), 석공예 이윤섭(동), 도자기 분야에 윤석만(동), 박훈원(동)씨가 입상하는 등 다양한 직종에서 수상자가 배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전국대회에서 메달획득 가능성을 보였다.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폴리메카닉스(금메달) 분야 외에 금형,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입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전주공업고등학교의 경우도 자동차 차체수리 분야에서 2개의 메달(은·동)을 획득하는 등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꾸준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군산기계공고, 한국계임과학교, 영선고 등 지역의 학교에서 다양한 직종의 입상자를 배출하여 지역의 숙련기술의 위상을 높였다.

이날 위원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에 대해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 관계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 기량을 갈고 닦아 전북 기능인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도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문건위 전북체육관 방문 전국체전 선수단에 격려 건네 46개 종목 1600여명 출사포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11일 제98회 전국체전 결단식이 열리는 전북체육관을 방문해 전북 선수단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

위원들은 그 동안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해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물론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체육회 관계자와 지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완수 위원장은 "더운 여름과 추석연휴에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한 여러분 모두는 전라북도 체육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이라며 "참가하는 선수 모두가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열렬히 응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98회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리며 전북 선수단은 46개 종목에 1,608명이 출전, 종합 9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북도, 청년일자리 확대 솔선수범

### 공공기관 직무 인턴 모집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전북도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인턴 참여자 82명을 모집한다.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 인턴'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도내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전공분야의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진로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상반 대학생 직무 인턴운영 분석 결과, 참여대상 확대 제안과 공공기관의 선택 시 전공직무와의 적합성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도내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미취업청년(휴학생, 졸업생,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전공과 연계한 부서배치를 강화하여 인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턴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턴모집 내용을 공고하여, 신청 접수하며 최종 선발 결과는 10월 하순경 도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된다.

인턴은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

지 공공기관의 실무부서에서 전공 관련 지식 기술 분야의 일을 맡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을 적용하고 참여 인턴은 근무기간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인턴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 취업준비생이며, 신청방법은 도 홈페이지-메너(대학생 인턴 신청) 클릭하여 참고서식을 작성,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인턴의 효율적 관리와 멘토(부서 담당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위해 사전 교육(OT)등을 추진함으로써 인턴관리를 명확히 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청년들이 미리 현장직무를 경험하여 진로를 탐색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전공 관련 직업에 안착되는 등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하며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하반기 대학생 직무인턴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청년정책팀(☎ 280-3213, 3215)로 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 시급하다”

### 전북연구원, 지방분권 정책 대응 세미나서 방향 제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이 주최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는 전국이 개성 있게 꽃피고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간 기회균등 촉진과 지역의 발전역량 증진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1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전북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과 전라북도'를 주제로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지역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인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통해 "자치분권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한 필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바란다'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인구, 마을 등 지역활력화와 정주환경, 문화여가, 의료 복지 등 삶의 질 제고를 제시하고 공간적, 계층적, 분야별 균형발전 뉴딜정책과 시군의 자율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세미나는 전북연구원과 지역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라북도, 한국자치행정학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KFN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지사장 김선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